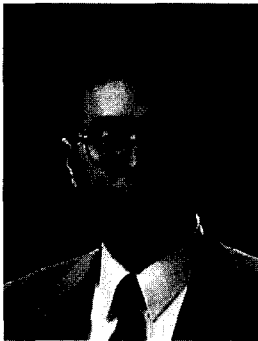


실물경기의 동향과 2000년 경제전망



이 수 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97년말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여파로 98년중 사상최저(-5.8%)의 성장률을 기록한 우리경제는 99년들어 1/4분기 중 플러스(+)성장으로 반전한 데 이어 2/4분기에는 9.8%의 높은 성장을 이룩하여 상반기중 예상보다 높은 7.2%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경기회복추세는 하반기들어 더욱 빨라져 경제성장률이 1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성장률도 80년대 후반, 삼저시기이후 가장 높은 9.5%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해외의 시각도 지난 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중 한국경제가 가장 모범적인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지원받은 긴급지원자금(SRF)도 앞당겨 상환하였으며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국가신용도를 빈번히 상향조정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우리경제는 규모면에서 볼 때, 하반기 이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보다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경제의 경기회복 내용과 그 특징 그리고 향후 2000년의 경제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 目 次 ■

- I. 실물경제의 동향
- II. 최근 경기 회복의 특징
- III. 2000년 경제전망

I. 실물경제의 동향

최근의 경기회복은 98년 10월이후, 정부의 확장적인 금융·재정정책에 힘입은 내수진작과 99년중 우리경제에 긍정적으로 전개된 해외경제여건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다. 내수부문에 있어 전반적인 소비심리의 회복과 설비투자의 증가 그리고 하반기들어서 특히 수출부문에서 해외시장여건의 호전에 편승한 반도체와 자동차, 전자통신기기 등의 수출급등이 경기호전을 주도하였다. 이에 따라 수요면에서의 호전은 주로 제조업을 통해 경기확산에 기여해왔다. 예컨대, 지난 10월중 산업생산은 외환위기이전인 97년10월의 118.2%에 달하였다. 외환위기이후 한때 64.6%(98년7월)에 그쳤던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지난 3월이후 70%를 넘어선 이래 최근 80%에 육박하고 있다.

산업생산의 빠른 증가로 외환위기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실업률도 99년2월을 정점(8.6%)으로 하락세로 반전된 이후 최근에는 4%대로 낮아졌다. 실업자수가 아직 1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의 확산으로 전업종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구직 가능성이 없어 노동시장을 이탈하였던 노동자들이 다시 취업시장으로 복귀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월 61.8%까지 높아졌으며 외환위기이후 47.1시간까지 줄었던 주당 평균노동시간도 51.7시간으로 늘어나 위기이전의 52.8시간에 접근하고 있다. 다만,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절약적 기술의 채용이 늘고 경제전체의 고용흡수력이 저하되어 경기회복에 따른 급격한 실업률의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경제가 100만명 내외의 실업자를 상당기간 안고 갈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할 것이다.

수요면에서 외환위기이후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99년들어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민간소비지출이 빠르게 늘어 초기 경기회복국면을 주도하고 있다. 98년중 민간소비지출은 97년에 비해 9.6%나 감소하였으나 올들어 상반기중 7.6%가 늘었으며 하반기들어서는 10%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지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인 도소매판매액의 경우, 10월중 97년 10월의 100.4%수준으로 회복하고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15.7%를 기록하였다. 이같은 소비급증세는 주로 내구재의 이연소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지난 3/4분기중 내구재와 준내구재에 대한 소비지출 증가가 각각 55.3%, 11.9%를 기록한 반면,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지출증가는 4.6%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라는 급격한 환경변화로 소비자들은 재화의 특성상 소비시점을 연기하기 용이한 내구재의 소비를 유보한 후, 경기회복에 따라 다시 소비지출을 늘린 것도 소비급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근의 내구재 소비증가는 지난 해 소비감축에 따른 기술적 반등수준을 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신모델의 출시, 국민PC와 이동전화의 보급확대 및 특별소비세율의 인하와 같은 요인으로 부분적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주요한 소비증가원인은 소득증가에 의한 구매력의 증가라고 할 것이다. 99년들어서 3/4분기까지 이미 명목임금이 10.6%가 올랐으며 실업률도 지난 8%수준에서 4%대로 낮아져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 근로자 가구의 구매력이 증대되었다. 이외에 추가급반등과 부동산가격의 오름세 등에 따른 부의 증가도 위축된 소비를 늘리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내수증가의 다른 한축은 투자이다. 설비투자

이 포착된 97년 3/4분기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99년들어 경기회복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향후 경기전망도 밝음에 따라 지난 2/4분기이후 증가세로 반전하여 내수주도의 경기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모면에서 아직 97년도의 투자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투자의 성격을 반영하여 설비투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그리고 건설투자는 경기에 후행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최근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40%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아직 감소세가 둔화되는 과정에 있다. 건설투자의 경우, 지난 2/4분기이후 건축허가면적이 증가세로 반전하고 국내건설수주가 9월이후 30%대의 증가세를 기록함으로써 조만간 건설투자도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99년 하반기이후 경기회복이 가속화하는 것은 수출증가에 기인한 면이 크다. 상반기까지 수출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1/4분기중 6.1%나 감소한 데 이어, 2/4분기중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나 2.6%의 미증에 그친 결과이다. 그러나 3/4분기에 들어서는 두자리수 증가율(15.3%)을 기록한 데 이어 11월중에는 월별 통관실적 사상 최대 규모인 143억불의 수출실적(전년동월비 22.2%)을 기록하였다. 특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선진국(27.8%)과 신흥시장(24.9%)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있어 향후 전망도 밝다고 하겠다. 수출증가와 함께 수입은 더욱 빨리 증가함으로써 무역수지나 경상수지는 지난해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4분기중 8.1%에 그쳤던 수입증가가 3/4분기중에는 38.5%로 급증하였으며 11월중에는 4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차는 지난해 390억불에서 올해는 250억불미만에 그칠 전망이다. 여전히 GDP규모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흑자이긴 하나 추세적으로 볼 때,

흑자기조의 정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대내외 수요신장과 산업생산의 급증 그리고 실업의 감소 등으로 경제내의 인플레이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화될 물가상승세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물가안정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이 늘고 있다. 그러나 99년말 현재 현저한 물가상승요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은 사상최저수준이라 할 1%에 그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도 지난해와 비슷한 6%수준, 서비스부문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상승을 반영한 공업제품가격도 2%미만을 기록하였다. 국제원유가도 정점을 지난해다 원화가치의 절상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요인에 의한 국내 물가상승부분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압박과 금리상승을 비롯한 원가상승요인은 가격전가에 의한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동안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온 수입개방의 효과가 작용한다면 이 또한 높은 물가상승을 결과할 것으로는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II. 최근 경기회복의 특징

앞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경제는 외환위기이후의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장기성장경로로 빠르게 복귀하는 과정에 있으며 경기회복과정에서 경상수지 흑자축소와 물가불안 등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체로 실물부문의 경우, 현저한 회복세를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경제가 70년대 이후 지난 해까지 여섯 번에 걸쳐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이번이 일곱 번째 경기순환인 셈이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경제가 일단 경기회복국면

에 접어들면 평균 31개월, 약 2년 반 정도를 유지한 후 다시 경기수축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 기간은 평균 19개월, 약 1년 반 정도이었다. 외환위기와 겹친 지난 번 경기 수축기는 34개월 정도로 거의 3년에 걸쳐 불경기가 지속되었는데 이는 평균치의 두 배에 달하는 긴 기간이었다. 다행히 우리경제는 울들어 더욱 빠른 성장을 기록중이다. 과거의 평균적인 경기확장기간이 31개월이었으므로 지난번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을 경우, 현재의 경기회복국면은 2002년 5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은 최근 우리 경제가 급속한 경기회복과정에서 나타내고 있는 몇 가지 특징적 양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보완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경기회복의 초기 단계에서 업종간, 지역간 그리고 기업규모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경제는 80년대이후 경기양극화의 양상을 보여왔으며 이번의 경기회복국면에서도 이같은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지난 5월까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이루어졌으며 경공업부문과 중소기업 등은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편향된 경기 추이를 보인 것이다. 1/4분기만 보더라도 경공업부문의 산업생산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가 줄었으나 중화학공업부문의 생산은 12.8%가 늘었다. 제조업 22개 업종 중 외환위기 이전수준(97년10월)을 상회하는 업종은 사무기계, 운송장비, 화합물, 가구, 음식료품 등 10개 업종에 불과하고 나머지 12개 업종은 외환위기이전의 생산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전체의 평균 생산증가율을 넘어선 업종은 사무기계, 영상·음향·통신 등 4개 업종에 불과하다. 규모별로 보면 3/4분기중에도 대기업생산은 97년대비 22.8%가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생산은 97년 생산규모의

96.2%에 불과하였다. 6월이후 경공업생산은 15%이상 그리고 중화학공업부문은 30%이상의 증가를 기록중이어서 업종간 경기 양극화 현상은 다소 해소되고 있으나 상대적인 격차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경기회복에 따라 설비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도 차차 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다소 밝게 보인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6월)중 서울, 경기, 충청, 전남, 경북지역의 산업생산은 외환위기이전인 97년6월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나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전북 등지에서의 산업생산은 외환위기이전 수준을 여전히 밑돌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두번째 특징적 양상으로는 경기회복에 못 미치는 고용증가추이이다. 앞서 살펴 본대로 경제성장이나 산업생산은 전반적으로 외환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나 고용측면에서는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실업률은 지난 2월중 8.7%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 4.6%를 기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평균 실업률이 2.6%이었음에 비추어 아직 2%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하반기에 오면서 실업률의 하락추세가 둔화되고 있어 외환위기 이전수준의 실업률로의 복귀는 상당한 기간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취업이 상용직보다는 임시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취업시간도 36시간 미만이 빨리 증가하고 있어 열악한 취업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분기만 해도 주 36시간미만 근로자의 수는 25.9%가 늘었으나 36시간 이상 근로자의 수는 1.6%가 줄었다. 일용 근로자의 수는 42.5%가 늘어난 반면 상용근로자의 수는 2.6%가 늘었는데 그쳤다. 그결과 97년중 임금근로자의 54.1%를 차지하던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99년10월중에는 47.3%로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중 상용직 근로자수는 715만명에서 611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불완전 취업자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일용직의 비중이 14.3%에서 19.2%로 늘어나 임시직의 비중 증가(31.6%에서 33.6%)보다 오히려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번째 특징적 양상은 초기의 경기회복이 소비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80년대이후 경기회복은 주로 수출과 투자에 주도되어 왔으며 소비는 경기회복에 따라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 데에 반해 이번에는 소비가 먼저 늘고 투자가 뒤따라가는 형국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소비주도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이후인 지난 1/4분기중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며 최근 40%에 달하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규모면에서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나 투자증가율은 매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투자가 과거와는 달리 제조업보다는 운수장비, 무선통신기기 등 서비스부문에 치우쳐있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하겠다. 특히, 설비투자과 고용증대간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어 산업생산과 투자 증대를 통한 고용확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경기급등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초의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정에서도 물가는 평균 상승률이 1%대로 안정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원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크게 오르고 국내에서도 농수산물의 수급차질이 일부 발생하였음에도 상반기까지 물가는 소비자물가가 0.6% 그리고 생산자물가는 -3.2%로 크게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연말에도 소비자물가는 1%내외수준에서 생산자물가는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사실 이같은 물가안정은 98년중 물가상승

에 대한 반락의 효과에 의존한 측면이 크다. 98년중에는 대폭적인 환율절하와 수입물가상승으로 소비자물가가 7.5%나 올랐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원화의 대미환율이 1400원대에서 1100원대로 크게 안정된 데에 힘입어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물가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다. 임금상승도 상반기중 10%내외에 달했지만 설비가동률 향상을 비롯한 노동생산향상 요인이 작용하여 단위노동비용은 오히려 4%내외의 감소를 나타내어 물가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물가의 안정과 원화환율의 안정은 국내유통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수입품에 대항할 수 있는 수입대항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 않았다면 기간중 가속화된 실질적 수입자유화와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증대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Ⅲ. 2000년 경제전망

1. 대내외 경제여건

1) 해외경제여건

장기간 호황을 구가하던 미국경제가 조정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유럽지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계경제는 99년중 3.0%성장을 이룩한데 이어 2000년에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가 각 지역으로 전염되면서 최후의 수입처 또는 투자지역으로 인식되던 미국이 경기조정국면으로 진입하는 반면 일본과 유럽지역에서의 경기회복 그리고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이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함에 따라 적어도 3.5%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교역량(물량기준)의 경우, 99년중의 3.7%에서 2000년중에는 6.2%로 크게 신장할 전망이다.

국제금리는 세계경기의 전반적인 상승세와 달러약세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감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세계금리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물부문에 있어 미국 경제의 둔화와 일본과 EU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화 가치도 대미달러화 가치를 기준으로 상반기중에는 엔화의 강세가, 하반기중에는 유로화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다.

99년중 한때 배럴당 26달러에 달하기도 했던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합의에 대한 결속력이 다소 약화되고 비OPEC산유국들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럴당 20달러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내경제여건

2000년중 국내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호재와 악재가 함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실물경제의 상승세를 거스를 정도의 위축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책면에서 실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긴축정

〈표 1〉 2000년 세계경제전망

	1996	1997	1998	1999(f)	2000(f)
세계경제성장률(% , 연간)	4.3	4.2	2.5	3.0	3.5
미국	2.8	3.9	3.9	3.8	3.5
일본	3.9	1.4	-2.9	0.8	1.2
유로권	1.4	2.4	2.8	1.9	2.8
중국	9.7	8.8	7.8	7.1	6.3
동남아	7.5	4.5	-8.0	-1.1	3.6
라틴 아메리카	3.1	4.7	2.3	-1.2	4.0
동유럽	4.0	3.0	3.3	3.5	4.8
세계교역 성장률(% , 연간)					
(물량기준)	6.8	9.9	3.6	3.7	6.2
(가격기준)	-1.3	-4.9	-5.1	-0.8	1.8
국제환율(연평균)					
엔/달러 환율(¥/\$)	104.75	121.05	130.9	113	100
달러/유로 환율(\$/EURO)	-	-	-	1.08	1.10
국제금리(% , 연말)					
미국(T-Bond 30년물)	6.65	5.71	5.41	5.87	6.30
(일본(국채 10년물)	2.52	1.51	1.12	1.70	1.70
국제유가					
(WTI기준, \$/bbl, 연평균)	21.95	20.61	14.80	17.80	21.00

자료 : IMF, OECD 등

책으로의 선회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재정 정책이 중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정책의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고 통화정책은 당분간 저금리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날 경우, 이를 다루기 위한 보수적인 통화정책으로의 선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4분기 이후 예상되는 긴축으로의 방향선회는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에 대한 영향이나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98년 이후 확대된 재정·금융정책을 다소 완화하는 수준에서의 완만한 긴축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대우사태로 심화된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은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이나 2000년 중 본격화될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기업의 일부 퇴출이 가져올 단기적 영향은 부정적이며 2차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조심스런 정책기조의 유지가 예상된다고 할 것이다.

금리의 경우, 채권수급 불균형과 물가상승 등으로 장기금리의 상승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나 통화당국이 당분간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방침인데다 부채비율 감축, 주식발행 증가 등으로 기업의 외부차입수요가 크지 않고 경제성장률도 차차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폭적인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환율의 경우, 국제환시장에서 엔화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200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해외자본의 국내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완만한 원화절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경제전망

2000년에는 99년 하반기의 높은 성장세가 다소 수그러들 것이나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연간 성장률이 6-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비확대 추세가 내구재를 거쳐 비내구재 및 서비스재화로 파급되면서 당분간 지속되고 투자와 수출이 늘어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소비증가추세는 적어도 상반기중 급격한 둔화가 예상되지 않으며 경기확장에 따른 투자가 늘고 수출환경도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기회복과 각종 원자재가격의 안정 등으로 호조가 예상된다. 회복초기에 우려되었던 경기호전의 파급도 경공업과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면서 안정적인 경기확장과정을 예견케 하고 있다. 2000년중에는 99년중 두드러졌던 반등효과는 없겠으나 각 부문이 고른 확장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종수요부문을 보아도 소비주도에서 수출과 투자가 같이 늘고 있어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소비부문을 임금에 다시 상승하고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안정되고 제한적이거나 자산시장이 회복되는 등 구조조정과 경기추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됨에 따라 2000년중에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민간소비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인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는 등 자산가격의 상승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소비심리안정과 함께 당분간 지속적인 소비증가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99년 하반기중 활기를 띤 수출은 먼저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통신장비와 자동차, 조선 및 해외건설 등이 엔고와 각 업종의 해외시황 등 긍정적인 여건의 지속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00년중 전년동기비 7%내외 신장된 1550억불내외의 수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화위기에

서 벗어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경제가 활기를 회복하고 있으며 우려되었던 중국경제도 7%대의 성장이 예견되고 수출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안정적인 수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99년중 35%내외의 높은 증가를 보인 설비투자는 향후 안정성장에 따른 투자수요의 증가와 부채비율요건을 충족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활기가 예상됨에 따라 2000년중에도 20%내외의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 99년중 재정투자확대와 일부 주택건설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약 10%정도 감소한 건설투자는 경기회복의 확산에 따라 증가세로의 반전이 예상되나 증가율은 5%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소비와 투자 그리고 수출의 각 부문에서 수요신장이 예상됨에 따라 해외로부터 원자재 및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은 20%내외의 탄력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내수회복에 따라 수출입 차가 줄어들게 되어 2000년중 무역수지는 150억불, 경상수지는 100억불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부문은 연중 환율이 국내외환수급을 반영, 급격한 변동보다는 완만한 절상기조를 이어 갈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에 따른 총수요압력에 의한 물가상승요인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99년 하반기 이후 다소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세는 2000년중에는 대내외 물가상승요인의 누적으로 오름세를 타지만 평균 2%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먼저 통화의 경우 2000년 초 인플레이션 압력이 보다 가시화될 경우 통화당국은 2/4분기 이후 단기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을 다소의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고 유가 상승추세의 지속, 빠른 경기회복, 부동산 가격 및 공공요금 상승 등과 더불어 물가 불안압력이 높아지면서 통화관리 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우사태의 정리와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외국인 투

자자금의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 압력은 더욱 커지고 제2차 금융구조조정과 6-64대기업에 대한 Work-out이 본격화함에 따라 통화당국은 신축적 통화운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자금사정은 계속되는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기업들은 직접금융보다는 은행대출 등 간접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높여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자금수요는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자금수요 증대와 대기업들의 채무약정이행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환율은 2000년중에도 대규모 외환수요는 예상되지 않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기조와 해외자금의 국내유입 증가 등으로 달러공급우위가 지속됨에 따라 완만한 원화절상 기조의 지속이 예상된다. 기조적 절상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의 개입도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서 연중 원화가치는 달러당 1100원 내외를 평균치로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당국으로서는 국제시장에서 엔화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화긴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원화강세에 대한 부담감은 그만큼 적게 느껴질 수도 있다.

3. 국내산업전망

앞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 산업경기는 국내외적으로 돌발적인 악재가 불거져 나오지 않는 한 성장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은 사상 최대의 생산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적인 IT 관련 투자 증대, 초고속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가전

〈표 2〉

국내경제전망

구 분	1998	1999				2000	
	연 간	1/4	2/4	3/4	4/4	연 간	연 간
국내 총생산	-5.8	4.5	9.9	12.3	11.1	9.6	7.1
(제조업)	-7.2	10.3	20.4	26.8	20.6	19.6	8.6
총소비	-8.2	5.1	7.4	8.5	8.4	7.4	7.0
민간소비	-9.6	6.3	9.1	10.3	10.4	9.1	7.8
고정자본형성	-21.6	-4.1	5.2	8.8	6.9	4.5	8.0
설비투자	-38.3	12.9	37.2	48.0	41.8	34.9	11.2
건설투자	-10.2	-13.7	-8.5	-10.0	-7.9	-9.8	5.8
생산자 물가	12.2	-3.5	-3.3	-1.9	0.2	-2.1	2.1
소비자 물가	7.5	0.7	0.6	0.7	1.1	0.8	2.6
경상수지	405.6	61.9	63.8	66.4	52.9	244.9	105.5
상품수지	416.3	67.8	80.1	71.9	64.2	283.9	151.5
수출	1321.2	314.8	357.3	364.6	408.1	1444.8	1549.5
증가율(%)	-4.7	-3.7	3.8	16.0	21.4	9.4	7.2
수입	904.9	247.0	277.2	292.7	344.0	1160.9	1398.0
증가율(%)	-36.2	7.6	20.8	40.5	44.8	28.3	20.4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	-10.7	-5.9	-16.3	-5.5	-11.3	-39.0	-46.1
원화 환율환유(Won/\$)	1204.0	1227.0	1157.0	1216.0	1140.0	1140.0	1100.0
달러/유로 환율(Yen/\$)	113.4	119.0	121.0	106.5	103.0	103.0	100.0
M3증가율(%)30년물	13.9	13.7	13.3	10.5	9.9	11.8	11.3
회사채수익률(%)	15.1	8.4	8.0	9.6	9.8	9.0	10.1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의 경우에는 기존 제품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디지털관련 제품들이 출시되기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가전의 경우 생산(원화 기준)은 6.2%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는 국내경기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가전제품의 특소세 폐지에 따른 수요

진작 효과가 가세함으로써 22.2%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수출은 동남아시아의 회복세 등에 힘입어 10.1%(원화기준 1.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산업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IT 투자,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13.5% 성장할 전망이다. 수출은 PC본체와 TFT-LCD 모니터를 중심으로 22.1%(원화기준 12.4%)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할 전망이다.

통신기기는 99년의 고성장세가 둔화되어 2.3%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내수는 무선기기 시장의 정체로 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네트워크 관련 장비시장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은 이동통신시스템과 이동통신단말기의 수출호조로 7%(원화기준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산업은 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전체 생산 기준으로 23.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조립생산을 포함한 반도체산업 매출액은 95년 이후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하반기 이후 세계 PC시장 성장이 둔화될 경우

일부 제품 분야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국내기업들이 DRAM 분야에서 현재의 생산성 향상 속도를 유지하는 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화학 생산은 국내 관련산업의 성장세 지속, 세계 석유화학 경기회복 등으로 물량기준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는 자동차, 전기·전자 등 관련산업의 호조로 10% 내외의 양호한 성장이 예상된다. 수출은 최대 시장인 중국의 수요가 견제할 것으로 보여 4.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생산은 의약분업의 실시로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줄어들어 전년대비 2.8%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품

〈표 3〉

주요 산업의 전망

(단위: 전년대비 증감율, %)

구 분	1998	1999			2000
		상반기	하반기	연 간	
가전	-5.7	-5.8	34.1	9.9	6.2
컴퓨터	4.3	6.1	35.9	20.0	13.5
통신기기	4.9	34.4	116.9	25.0	2.3
반도체	-19.4	28.7	38.6	34.0	23.5
석유화학	7.3	7.0	7.7	7.3	8.9
의약	-2.1	3.0	3.9	3.4	2.8
자동차	-30.7	38.7	32.8	35.6	9.4
건설	-36.1	-8.9	0.2	-4.4	17.2
백화점	-7.7	10.8	15.7	13.4	9.4
할인점	43.3	59.1	56.1	57.4	9.4
통신서비스	0.1	40.4	33.9	36.8	20.0

주 : 반도체는 달러출하액(일관생산) 기준, 가전·컴퓨터·통신기기·의약은 원화출하액 기준임.

자동차는 생산대수 기준, 석유화학은 물량기준임.

국내건설은 수주액 기준, 백화점·할인점·통신서비스 매출액 기준임.

자료 : LG 경제연구원

질 및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 대형 제약기업 및 약국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생산은 내수 및 수출의 증가세에 힘입어 생산대수 기준으로 9.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는 경기회복세 지속, 신모델 출시 등의 영향으로 10%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수출은 미국,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 호조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6.7%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건설은 2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정장으로 반전될 전망이다.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이 활기를 띠면서 건설공사 계약액은 17%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은 정부의 SOC 투자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산업은 백화점과 할인점이 시장을 양분하면서 업체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10% 내외의 성

장세를 보이는데 반해 할인점은 40%이상의 매출 신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서비스 시장은 이동전화 부문의 호조, 고속 인터넷서비스 시장의 확대 등에 힘입어 20%대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의 고속 인터넷서비스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계속 증가하여 2000년말에는 2,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0년에는 실물부문이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함으로써 기업들도 다소 여유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시점일수록 새로운 성장 유망분야를 발굴하고 유망 분야에 R&D 투자 등 경영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화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 나가는 일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1999. 12. 20.)

恩裡由來生害。故快意時，須早回頭。敗後或反成功。故拂心處，莫便放手。

은혜 속에서 본디 재앙은 싹트나니, 그러므로 만족스러운 때에 모름지기 머리를 돌려 사방을 둘러보라. 실패한 뒤에 도리어 성공하나니, 그러므로 일이 뜻대로 안 된다 하여 곧 포기하지는 말라.

- 萊根譚 중에서 -